

보도 일시	2022. 12. 6.(화) 9:00	배포 일시	2022. 12. 6.(화) 9:00
담당 부서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책임자	연구관 박성원 (063-220-1022)
		담당자	연구사 이기현 (063-220-1027)

국립전주박물관 로비 작은 전시 <겨울 그리고 봄>

- (전시기간) 2022.11.24.(목) ~2023.4.3.(월)
- (전시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작은 갤러리
- (전시작품) 고상준 화백 작품 6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23년 4월 3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로비 작은 갤러리에서 <겨울 그리고 봄>을 개최한다.

평생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그려온 고상준 작가는 따스한 햇빛을 받고 있는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숙한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 그의 작품들은 장미, 모란, 칸나와 같은 아름다운 꽃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표현하여 저마다의 사랑스러움과 경쾌함이 작품 너머로 배어져 나온다.

고상준 작가는 전북 군산에서 출생해 전주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르 살롱전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목우회전 등에서 수상하였다. 각종 미술대전에서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예술가의 뜻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장미가 주는 밝음, 사랑스러움, 향기로운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모란의 부귀와 화려함, 칸나의 존경심까지 담아낸 작품 6점을 선보인다.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추운 겨울, 환하게 피어난 밝은 장미를 감상하면서 다가올 따뜻한 봄과 우리의 희망을 떠올리고, 새로운 자연의 생명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향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작가 약력, 전시 전경 및 작품



고상준 작가 약력**학력**

군산고등학교 졸업, 군산교육대학 졸업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개인전

제1회~제3회(1989, 2000, 2004) 군산시민문화회관

제4회(2005) 서울 상 갤러리

제5회(2009) 서울 인사아트센터 1층 전관

제6회(2010) 군산 갤러리 정

제7회(202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미술관 초대전

수상

제15, 16, 18, 19, 21회 목우회전 입선, 제17, 30회 목우회전 특선

프랑스 르 살롱전 입선, 프랑스 르 살롱전 은상

제12, 15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제13, 16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선

제4, 1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제1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제1회 원 미술대상전 대상

단체전

1991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전, 1992 목우회 회원전 외 다수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전라북도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전북 미술대상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전국 춘향 미술대전, 벽골제 미술대전,

갑오동학 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라남도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심사위원,

경기미술대전, 전국온고을 미술대전운영위원



사진1. 고상준 <장미>, 72.7×60.6cm, Oil on Canvas



사진2. 고상준 <장미>, 72.7×60.6cm, Oil on Canvas



사진3. 고상준 <장미>, 60.6×41.0cm Oil on Canvas



사진4. 고상준 <칸나>, 41.0×27.3cm Oil on Canvas



사진5. 고상준 <모란>, 60.6×41.0cm Oil on Canvas



사진6. 고상준 <장미>, 33.3×24.2cm Oil on Canvas



사진7. 전시 전경



사진8. 전시 전경